

## 1 개요

알당본풀이는 애월읍 금성리 알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.

금성리 김춘장이 다른 지방으로 장사를 다니다가 아기씨를 대우하여 덕을 보았는데, 제주로 돌아올 때 아기씨가 함께 따라오기에 고방에 모시니 부자가 되었으며, 나중에는 당신으로 모시게 되어 어부와 잠수가 모두 제향을 하였다.

## 2 내용

금성리 새서물 동네 김훈장은 육지를 오가며 장사를 하였다. 경상도, 황해도 등 돌아다니다가 전라도 지리산을 지날 때 아기씨를 만났다. 아기씨가 자신을 잘 사귀고 먹여주면 장사가 잘 되게 해준다고 하였다. 아기씨 요구대로 잘 먹이니 하는 일마다 잘되었다.

제주로 돌아올 때 아기씨가 자기도 데려가라고 하였다. 김훈장은 딱한 생각은 하면서도 혼자 몰래 배에 올랐다. 아기씨는 김훈장이 그리 할 줄 미리 알고 먼저 배에 올라 있었다. 그리고 김훈장을 은혜를 잊고 약속도 어겼다며 야단을 쳤다. 김훈장이 용서를 구하니, 고방(庫房)으로 모시라고 하였다. 김훈장이 아기씨를 모시니 집안이 부자가 되었다. 잘 위하다가 집을 뜯게 되니 대나무, 복숭아나무 아래로 옮겨 아기씨 선양당으로 모셨다. 아기씨를 잘 위하면 어부와 잠수의 바다일이 잘 되어서 너나 없이 위하였다.

## 3 특징

애월읍 광지리에 거주하던 이상문 심방이 구연한 자료이다. 다른 지방으로 간 제주 남성을 따라온 여성이 신이 되어 남성 집안의 조상신이 되는 것은 조상신본풀이에서 흔한 설정이다. 이로 보아 아기씨는 본래 한 집안을 돌보아주는 조상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. 나중에 당으로 옮겨 모시게 되자 마을 어부와 잠수가 함께 모시는 당신으로 바뀌었음도 알 수 있다.

## 4 핵심어

금성리, 새서물, 김훈장, 경상도 황해도, 전라도, 지리산, 장사, 고방, 어부, 잠수, 선양당

## 5 원전 서지사항

알당(진성기, 《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》, 민속원, 1991)

## 6 관련 자료